

# “아파, 사투리로 소통하장께”



광주 디자인그룹 바비사인 브랜드 '역서사소'

‘여기서 사세요’란 의미 노트·핸드폰 케이스 등에 전라도 사투리 넣어 해석·활용법 소개...“전국 사투리로 확대할 것”

“아 있나 아파 공께.”

이 말은 전라도 지역에서 누군가에 말을 걸때 흔히 쓰는 사투리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친구들과 편히 이야기를 할 때 대화의 양념 역할을 한다.

광주 디자인그룹 ‘바비사인’이 지난 5월 출시한 브랜드 ‘역서사소’는 여기서 착안했다. 브랜드 이름 ‘역서사소’도 ‘여기서 사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사투리다. 한문으로 쓰면 ‘囍齊事笑’, ‘해 반짝 뜰 날 우리 함께 모여 힘껏 웃세’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역서사소’가 출시한 엽서(1000원)·편지지(2000원)·노트(3800원)·핸드폰 케이스(2만2000원) 등 4종류 27종의 제품은 친근한 전라도 사투리 문구가 큼직하게 박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바비사인은 각 제품에 쓰인 문구는 제품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을 이용했다. 예를 들어 편지지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용하는 ‘위메 아야’, ‘아 있나’, ‘아파 공께’ 등이 쓰여있고, 엽서는 ‘위메’, ‘아파’, ‘징해’, ‘공께’를 사용해 문구만 봐도 대충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의도했다.

사투리를 사용하면 자칫 촌스럽다는 이미지와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품 외양은 파스텔 톤 색상이나 단순한 무늬를 사용해 세련되게 디자인했다. 마치 도회적으로 생긴 사람이 입을 열자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모양새다.

또 제품 뒷면에 사투리에 대한 정의와 설명을 넣어 타 지역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징해’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그만 좀 해’라는 뜻이고 표준어로 ‘아 정말 그만 좀 해!’은 전라도 사투리로 “아 진짜 징하다 징해!”라고 쓴다고 활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들이 SNS를 이용할 때 대화 없이 이모티콘만으로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는 것처럼 ‘역서사소’ 구매자들은 제품에 쓰인 문구만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

‘바비사인’은 지난 2013년 조선대 미술대학 동문들이 모여 만든 그룹으로 벽화나 인쇄물, CI(Corporate Identity·기업 이미지) 등을 만드는 업체다. 김진아(33), 김효미(34), 조은혜(31)씨가 주축으로, 올해



휴대폰 케이스

전남대에서 미술을 전공한 김다혜(24)씨가 새롭게 합류했다.

이들은 광주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고민하던 중 가장 두드러지는 전라도 사투리를 아예 전면으로 내세웠다.

김진아(여·33) 디자인실장은 “외국에서 살다온 사람을 만났는데 ‘아 있나’를 이해 못해 ‘hey’라고 설명해 준 경험이 있다”며 “사투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고 싶기도 하고 광주 사람들의 말을 알리기 위해 이번 브랜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예능 프로그램이나 SNS 이모티콘 등에서 사용하는 사투리들은 요즘 전라도 말투



사투리제품 브랜드 ‘역서사소’를 만든 광주 디자인그룹 ‘바비사인’. 왼쪽부터 조은혜, 김효미, 김다혜, 김진아씨. <바비사인 제공>

와는 거리가 있어서 자신들이 평소 자주 쓰는 말을 우선 사용했다. 회의를 할 때 무심코 나온 ‘공께’라는 말을 선택하는 식이다.

‘역서사소’ 제품들은 현재 총장로 퍼스트 레시피, 동명동 동명관·플로리다 카페, 봉선동 셀러드보울 등 4곳에서 ‘숨 인 숨

방식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조만간 인터넷 판매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바비사인’은 전라도를 넘어 차츰 전국 모든 사투리로 제품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며 오는 17일 개막하는 광주 에이스페어에 새로 개발한 가방을 들고 참가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재미있는 사투리를 통해 타 지역에서 전라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전라도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정감 있는 언어를 제품으로 개발해 지역 화합을 이끌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417-101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정선심 광주시립국극단 수석단원

### 목포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정선심(44) 광주시립국극단 수석단원이 제27회 목포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판소리 명장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목포시가 주최하고 (사)한국국악협회 목포시지부가 주관한 이번 경연대회는 지난 5일과 7일 이틀간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정 씨는 이번 경연에서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황성 가는 대목’을 불러 영예를 안았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한 정씨는 1999년 광주시립국극단에 입단.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다. 남부대학교 음악학과에 출강중이며 한국생산성본부 전문 국악 강사로도 활동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

## 국윤미술관 18일~10월 30일 현대미술가회전 **흥을 싣고**

국윤미술관(관장 윤영월)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www.현대미술가회 초대전 ‘興(흥)을 싣다. 지난 2003년 발족한 www.현대미술가회(회장 임수영)는 여성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발전시키고 문화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현대미술과 지역사회와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매년 한차례씩 올해 13번째 전시를 갖는다.



임수영 작 'From the daily life'

남도의 신명, 원초적 ‘흥’을 표현하고 있는 이번 전시는 예술 속 신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즐거움과 긍정적인 마음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작가는 류현자, 박수옥, 백예경, 이선희, 이영민, 임수영, 정정민, 정삼, 조선아, 조수경, 채경남 등 11명이다.문의 062-232-735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시간을 싣고 기경숙전, 금호갤러리·광주학생독립기념관



‘천은사의 秋’

한국화가 기경숙씨의 개인전이 15일까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와 16~25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기씨는 서예, 문인화 등을 접하며 얻은 경험을 한국화에 녹여낸다. 옛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선을 강조한 부분과 실경산수의 구도를 이용했다. 또 먹 작업으로 안정감을 준 다음 노랑·초록

등 원색의 화려한 채색을 통해 자연을 그린다. 특히 채색을 반복하면서 원경은 점차 멀어지고 근경은 점묘법을 사용해 거리감을 강조하고 있다.

호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기씨는 한국문인화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입선, 정수미술대전 정수상 등을 수상했다. 문의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062-360-8432,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062-221-55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유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프랑스가구 런칭기념 30%**

**이태리가구, 소품**

**명화가구**

**홍스케이스** SINCE 199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   가구빌딩 7개층   ☎ 1899-0240